

201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2014학년도 한일고등학교에 배정 받은 신입생들이 2014년 2월 21일~ 22일(1박2일) 동안 충남 태안군 청포대 쉼터 유스호스텔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한일고등학교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제반 규칙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도 학교 연혁을 익히고, 교가를 부르며 학교의 전통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각 부서별 안내, 동아리 활동 소개, 방과후 수업 및 특기 적성 안내, 학생 생활 규정 등 입학 전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안내가 있었다. 무엇보다 담임선생님과 학급 친구들과의 첫 만남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입학을 축하하며 - 시작하는 한일인들에게



이사장 · 의학박사 김은미

2014학년도 새로운 한일의 신입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의 식구가 된 것은 여러분께는 무한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몇 차례 우리에게 선물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한일에서의 새로운 기회는 여러분께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는 경천의 교훈 아래서 모든 일정을 진행시킵니다. 입학식에서 입학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한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талан트를 발굴하여 키워 나가야 합니다.

한일에서의 교과과정은 인문고 속의 특목고, 인문고 그 속의 특성화고를 앞으로 내걸고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키워 나아가는 산실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창의성 있는 교육을 지향하며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 일인자가 되자.’ 라고하신 설립자 김예환 박사님의 뜻을 펼치고자 합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우리 한일의 학생들에게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이루고자 우리 교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뛰어놀 때는 열심히 뛰어 노는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지닌 영혼과 육신이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한일의 아들로 키우고자 합니다. 미래를 이루어갈 대한민국의 꿈을 이어갈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한일인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사랑의 불꽃을 피워나갈 우리 아들들 인생의 중요한 버팀목인 청소년기의 인생을 가꾸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진취적으로 생을 이루어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한일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제 한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슬프고 좌절하는 시기도 올 것입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여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설교말씀〉



박종관 목사

뜻대를 향해

(성경 : 빌 3:13-15, 민 13:30-14:10)

20세기의 최대의 역사가인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긴장된 역학으로 파악했습니다. 역사의 도전이란 무엇입니까? 역사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역사의 도전에 지체되고 용감하게 응전하면 역사의 우등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도전에 지체되고 용감하게 응전하지 못하면 역사의 낙제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역사의 자람스러운 우등생이 되고 역사의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지닌 민족과 개인이 인생의 성공자, 역사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 목표도 없는 사람과 민족은 반드시 인생과 역사의 패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승리를 바라십니까? 입학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라는 말 대신에 소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상이요 해도 좋습니다. 비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꿈이라고 해도 좋고 사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과 정열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먼저 뜻을 세우고 목표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뜻을 세우되 큰 뜻을 세우고, 높은 뜻을 세우고, 옳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뜻을 세우는 것 처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맹주먹으로 시작하여 인생의 대업을 성취한 사람을 보면 모두 마음속에 간절한 뜻과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 마음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고, 뜨거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 정성을 쏟고,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강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목표가 있다’는 말처럼 헛된 말이 없습니다. 하루에는 하루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 달에는 한 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일 년에는 일 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의 목표가 있고, 교회에는 교회의 목표가 있고, 학교에는 학교의 목표가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투노력의 과정입니다. 목표가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99퍼센트의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는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은 현대 문명사회의 최대의 비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곧 비극입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 간절한 기도, 분명한 비전이 없이 그 날 그 날을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어물어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충실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되 분명한 목표, 간절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보람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목표요, 꿈이요, 사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간격스러운 인도도 있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도 불렀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행편을 알아보기 위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방백 열두명을 대표적으로 선출해서 40일 동안의 기한을 주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사명을 갖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행편을 자세히 살펴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 두 사람의 정탐 가운데 열 사람은 꼭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이와 같은 포도가 열리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산이 높고 골짜기는 깊고 험합니다. 성막은 견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 성막에 그대들 이거 볼 때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절망을 심어 주었고 소란이 생겼습니다. 이때입니다. 미처 못 하고 지고 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웃을 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실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조전에 보고 하신 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이미 꺾였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그 땅을 차지 할 수 있습니다. 우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간간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걸리기 쉬운 것, 방해되는 것은 벗어나려야 합니다. 그것이 꼭 좌라고 말하는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는 습관,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벗어나버리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습관도 다 벗어나버리십시오.

프랑스의 문필가 앙드레 모로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사는 기술은 하나의 공적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 고 했습니다. 독일의 에르메히 박사의 606번째 걸친 근절된 의학 실험의 결과 사르마산이라는 약품을 발명한 것입니다. 에디슨의 많은 발명과 발명은 인류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는 과학자의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는 개혁의 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는 도전의 용사가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험의 인물이 드물었습니다. 적국보다는 소국, 농동보다는 피동, 도전보다는 현상유지, 진취보다는 보수, 모험보다는 무사한일, 우리는 이런 역사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삶, 능동적인 삶, 도전적인 삶, 진취적인 삶, 모험적인 삶을 사는 새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한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노력의 차이입니다. 거의 점은 벗어나려고 달려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로 달려섭니다. 앞에 있는 상을 잡으려고 쫓아갑시다. 그럴 때 승리의 면류관이 썩어질 줄 믿습니다.



행운이 넘쳐난다는 청마의 해에 명문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두 가지만 당부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첫째도, 둘째도 ‘꿈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조금은 식상할지 모르지만 ‘꿈’, ‘비전’이란 말은 여전히 아름답고 신비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큰 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고 고결해 보입니다. 꿈은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묘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섯 살 때쯤인가요? 우리는 2002한·일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수들과 전 국민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도 못했던 월드컵 16강, 8강에 다가갔고, 마침내는 4강까지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고야 말겠다는 에너지는 인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뇌관입니다. 고등학교 3년이란 시간은 한 사람을 완벽히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긴 시간이기때문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됩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고의 문제도 아니고 현재의 성적이 좋고 나쁘고도 아닙니다. 순간적 쾌락과 안일에 빠져 흐느적거리며 한 달 두 달 보내다 보면 어느

새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손 안에는 아무 것도 쥌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반면에, 명확히 목표 대학을 정하고 장래의 직업을 머릿속에 그리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간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운동장 이 쪽에서 저 쪽 건너편 구석까지 긴 선을 그어 본 적이 있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건너편의 플라타너스 나무를 바라보면서 선을 그어나가면 신기하게도 바르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땅만 내려다보면서 막대로 선을 그어 나가면 나중 고개를 들었을 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와 버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원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먼 목표를 바라보고 자기의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위의 당부에 더하여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우정을 나눌 친구를 꼭 사귀어 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어느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만 명의 인맥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일생을 통해 가장 친한 친구는

꿈★은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교장 최상호

대개 고등학교 때의 친구입니다. 이해득실도, 신분의 높낮이도 없이 그저 성격이 맞고 취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단짝이 될 수 있는 시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말없이 도와주는 친구,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친구를 우리 환일의 교정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옛 현인은 “水至清即無魚 人至察即無徒(수지청즉 무어, 인지찰즉 무도)”라고 했습니다. 물은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은 너무 따지게 되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부족한 친구라도 있는 것이 백배 낫습니다. 지나치게 따져서, 애는 이래서 싫고 재는 또 저래서 싫다고 툭툭 먼지 털듯이 끊지 말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며 우정을 나누다 보면 평생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꿈을 가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세계를 향한 꿈과 우정을 이제 환일에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환일고등학교 학교 신문 은 행나무 기자단입니다. 인터뷰에 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 평소 궁금했던 질문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하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환일고등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과 학교에 오셔서 둘러보신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환일고등학교는 명문 사학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학교 현안 사업 관련해서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학생들의 눈빛과 품행이 타 학교에서 봐왔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절제 된 행동과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도 참 깨끗하고 고풍스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학생과 학교의 모습이 다를까 생각해봤는데, 이사장님과 교직원분들을 만나 뵈게 되면서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하나같이 학생들과 학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환일고에 대한 애착이 더 컸던 것 같고요.

Q2. 고등학교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기억에 남는 은사님을 말씀해주세요.

풍경과 친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제주도 수학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학교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 친구들과 맘껏 뛰어 놀았던 그 시간...생각해보니 친구들과의 추억은 거의 기억에 남고 즐겁네요. 그리고 이 모든 추억 속에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던 국어 선생님...휴일이면 시간을 내어 제자들과 낚시, 캠핑 등을 통해 스승과 제자사이의 벽을 허물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존경합니다.

Q3.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 공부,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정해진 것이니까요.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Q4. 학생들에게 시의회라는 기관이 생소합니다. 서울시 의회에 대한 소개와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최강선 서울시의회의원 인터뷰

국회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해봐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국회의 운영 및 활동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규모가 국회보다 작을 뿐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 학교 등의 운영 관련 조례 및 예산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곳입니다.

Q5.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공약들로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선거 때는 뭐든 다 해줄 듯이 행동하다가, 당선되고 나서는 주민들의 진실 된 목소리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 가장 보람된 사항은 참 많은데요. 무엇보다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한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중구의 경우 남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수년 간 많은 분들이 규제 완화에 대해 노력해왔지만 결과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올해 드디어 작은 결실을 맺게 되어서 참으로 뿌듯하고,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점. 특히 환일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증축과 교실 출입문 교체 등을 위해 노력하고 나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회장님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환일고에 대한 애정이 더 컸던 것 같네요.

Q6.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선초기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경험과 애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만나기 어렵거나, 당선되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라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해가며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학부도, 학생, 경찰청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폭력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마음껏 꿈을 꾸게 해주고 싶습니다.

Q7. 좌우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라」가 제 좌우명입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또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합니다. 항상 앞만 보며 내 목표와 가족, 시민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내일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와 잡념이 많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후회와 지체만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가끔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앞만 보고 가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Q8. 이번 은행나무 학교 신문은 신입생들에게 배부하는 특집호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달라진 환경과 친구들의 모습에 많이 어색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시기일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걸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일화를 낳게 된 에디슨의 전구 발명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 올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꿈,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인터뷰에 친절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일고등학교 은행나무 기자단〉

〈입학 축하글〉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때론 기대감에 부풀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일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373명의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우리의 삶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학년 학년부장 김학권

은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번 고등학교 입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이 세운 삶의 목표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시간입니다.

노력이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맞이하려면 지금 현재를 가장 충실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라는 성경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입학 축하글〉



환일고등학교 2014학년도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학년 1반 담임을 맡은 김기현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도합 9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발을 내딛은 고등학교. 이 봉학산의 정상에 우뚝 선 교정을 딛고 서있는 동기나 그 과정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그 3년간의 시기 중 첫 해가 지금 막 시작되려는 찰나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각자의 머리 속에 그려왔던, 혹은 바래왔던 고등학교 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정확히 짐작할 수 있는 길은 비록 없지만, 이런 생각 하나만은 모든 1학년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철부지 시절은 있고 진지하게 나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며 그것을 향해 지니고 있는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시기’ 라는 것.

환일고등학교는 여러분의 이러한 희망과 포부를 현실

In youth we learn; in age we understand

1학년 1반 담임 김기현

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터전이라고 자부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교내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과 제도가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넉넉한 책상, 교실을 환히 밝혀주는 밝은 조명, 계절을 무색하게 만들 냉난방 시설과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시청각 기자재, 새로 완공될 넓고 쾌적한 급식실 등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보살핌과 배려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음을 학교생활을 해나가면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또한 때로는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부모님의 역할을, 때로는 근심과 방향을 경청해주고 따뜻한 조언을 주는 누나와 형의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수험생활에 필요한 지식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회의가 들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역경이 닥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좌절하는 시기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아래의

교훈을 기억하며 힘차게 헤쳐나가시라고 부탁드립니다.

In youth we learn; in age we understand.

(우리는 젊을 때 세상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 이를 이해한다)

Marie von Ebner-Eschenbach (Austrian Writer, 1830-1916)

2014학년도 신입생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신입생 글〉



2014년 1월 10일, 용산중학교 졸업을 마쳤다. 그리고 정확히 2월 10일, 졸업한지 정확히 한 달 뒤 나는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낼 환일고등학교에 찾

아가 학교 등록을 하였다.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몇 분을 걸어오니 환일고등학교 교문 앞에 올 수 있었다. 교문까지 올라오는 오르막길은 앞으로 나와 환일고등학교에 다닐 다른 친구들이 겪을 3년의 일을 말해주는 듯이 길었다. 교문을 지나 학교 운동장 앞에 오자 눈이 덮인 잔디로 된 운동장이 보였다. 3년 동안 다니던 중학교와는 다른 모습에 익숙하지 않아 나와 친구들은 고개를 돌리며 학교의 외관을 구경하였다. 내부에 들어가도 중학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입학 등록을 하고 내가 1학년 1반 10번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친구들과는 반이 다 달라 아쉬웠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새

미래의 꿈을 안고

수석 입학생 1학년 김우진

로운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며칠 뒤, 2월 14일은 신입생 예비 소집일 이었다.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익숙하지 않아 일어나는데 애를 먹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1년간 같은 반에서 지낼 친구들도 보게 되었다. 교실은 깨끗했고, 중학교 때와는 느낌이 매우 달랐다. 수학과 영어 과목의 시험도 보게 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학교 내부의 여러 공간을 볼 수 있었다. 선교, 상담부와 인문사회부, 교무부 그리고 체육교육부 등의 설명 또한 1차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을 수 있었다. 학교의 여러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들었다. 또 이 날 받은 신입생 안내자료를 통해 학교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생활은 앞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고등학교 생활은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 될 것이다. 신입생 안내 자료에서 읽었던 ‘겪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라는 환일고등학교의 표어 중 하나가 기억에 특히 남는다. 개인적으로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던 적이 많은 것 같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3년 동안의 환일고등학교 생활도 자신감을 갖고 마칠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부담감은 크고, 그 부담감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그 부담감을 극복하고 나아가겠다.

〈신입생 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환일고 사격특기생으로 입학한 백종빈입니다.

우선 사격명문 환일고에 입학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저의 목표는 환일고등학교 진학이었습니다. 늘 대회 때마다 보는 환일고 사격부의 모습은 전국 최강 사격부답게 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매 시합마다 시상대 맨 위에서 상을 받는 환일고 형들의 모습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사격부와 달리 용모도 단정하고 예의 바른 환일고 사격부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출발의 의미

사격부 특기생 1학년 백종빈

나도 모르게 환일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환일고등학교 사격부 일원으로서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한발 한발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1학년 때 개인전에서 입상하는 것입니다. 저학년이지만 선배들 못지않은 실력으로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 3학년에 진급해서는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격선수로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격선수 이기 전에 환일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생활 및 학업에도 충실하여 공부하는 운동선수로서 모범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학교를 빛내는 멋진 환일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 업무 소개

**교무부 (부장 : 변호경)**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연간 학사 일정 계획 및 관리
- 고교 교육력 제고 운영
-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계획
- 학적 · 출결 · 장학 · 시상 업무
-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운영

**연구부(부장 : 이정철)**

- 대입 지도 업무
- 자율장학 활성화
- 교수, 학습방법 개선
- 학교 교육 계획 및 평가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 명사 특강
- 학력평가 관리 및 성적 분석
- 교과교실제 수업 운영

**생활지도부(부장 : 김광배)**

- 기본생활 습관 지도 및 적응 훈련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수학여행, 수련활동, 졸업여행 계획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선교상담부(부장 : 박종관)**

- 신앙의 내면화
- 종교행사 및 선교 활동 강화
- 정기예배, 학급기도회 운영
- 학생 생활 상담활동

**진학부(부장 : 신정섭)**

- 대입진학업무
- 세종 반, 소그룹 지도 받 운영
- 학생탐구논문 발표대회 주관, 논문집 발간

**특성화교육부(부장 : 최원호)**

- 신나고 활기찬 특기적성교육활동
- 직업반, 대안교실
- 진로지도

**창체계발부(부장 : 김학권)**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 적성, 소질에 맞는 동아리활동
- 동아리, 봉사, 체험 자로집 발간
- 다양한 봉사, 체험활동 운영

**정보미디어부(부장 : 김기현)**

- 교내 정보화기기 관리
- 학교 홈페이지, 방송국 관리
-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연수

**인문사회부(부장 : 김철우)**

- 인성 및 통일 교육, 각종 경시대회
- 독서교육 · 논술교육 · 토론교육 진행
- 도서관 및 전자 도서관 활성화

**과학 · 수학 영재교육부(부장 : 허성원)**

- 과학 교육의 효율적 운영
- 영재학급(과학 · 수학 · 발명) 운영

**체육교육부(부장 : 허동명)**

- 학교체육(체육대회,PAPS) 업무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비만학생 체력관리
- 특기적성 교육(체육)
- 환경 보전 의식의 개혁 및 캠페인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잔반 줄이기

1학년 담임 소개



김기현(1-1) 담당 과목 : 영어



최나미(1-2) 담당 과목 : 윤리



박홍진(1-3) 담당 과목 : 체육



김광배(1-4) 담당 과목 : 국어



양한준(1-5) 담당 과목 : 정보



김효숙(1-6) 담당 과목 : 사회



안현진(1-7) 담당 과목 : 영어



김경신(1-8) 담당 과목 : 국어



윤종은(1-9) 담당 과목 : 영어



최윤경(1-10) 담당 과목 : 음악



김기욱(1-11) 담당 과목 : 수학

1학년 체육교과 소개

담당교사: 박 홍 진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1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체육수업을 함께 할 박홍진입니다.
우선 우리학교는 남고의 특성도 있지만 체육수업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교사 및 학생이 하나 되어 수업을 실시합니다.

학기당 2번의 수행평가를 실시(예정)하며 단순히 운동지식과 기량만을 가르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닌 수업과정에서 학생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의와 할 수 있다는 열정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기죽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고등급의 인조 잔디 시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며 그 어떤 수업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교사인 저희부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주요교과뿐 아니라 체육수업에서도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임시 체육반, 야구반, 농구반 등)을 함께 하며 1년간 학생여러분 가장 가까에서 체육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적응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단언컨대 그 어떤 학교의 학생들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뛰고 땀 흘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끝으로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1학년 음악교과 소개

담당교사: 최 윤 경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 학기(6~11반:1학기, 1~5반: 2학기)동안 여러분의 음악수업을 맡게 된 최윤경입니다.
1학년 음악 수업은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 노래해보고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음악실에 구비된 40대의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기본기 도 익히는 등 학생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시간은 입시와 학과 공부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노래에 소질이 없어도 악기 연주 한 번도 해보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악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도 재미있는 음악 수업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1학년 미술교과 소개

담당교사: 김 학 권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1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미술수업을 통해 미적 감각을 키워나가며, 새로움을 추구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술과목은 집중이수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1~5반은 1학기에 수업이 진행하며 6~11반은 2학기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미술 수업은 단순히 손재주 및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법 등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실기 수업과 이론을 겸비한 수업이 진행 됩니다. 미술 실기수업 내용으로는 아이디어 발상 드로잉, 추상화, 크로키(손, 인체), 등의 다양한 실기활동을 실시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분위기의 가슴 설레는 고등학교 생활이 3년 동안 즐겁게 이어질 수 있길 바라고 미술과목을 통해 머리로 표현하지 않고 가슴으로 표현하는 보다 풍성한 감성을 키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동아리 소개

환일고등학교 동아리는 지역사회의 독거 노인들을 돌보고 적십자의 정신을 기리는 RCY, 예배 시간에 경건한 찬양과 복음을 전파하는 경배와 찬양단, 학교 신문인 은행나무를 편집하는 교지 편집부, 경제 전반 사항을 알고 경제 실력을 기르는 경제 동아리(HWANIL ECONOMICS) 등 상설 동아리 57개와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사랑, 영어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KIMC 등 자율동아리 15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MRA〉



〈RCY〉



〈교지편집부〉



〈경배와 찬양단〉



〈나라 사랑 실천 동아리〉



〈사격부〉

경제동아리 'HWANIL ECONOMICS'

2학년 김성훈

HWANIL ECONOMICS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일고등학교 경제동아리 HWANIL ECONOMICS는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고 상경제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34명의 부원들이 신문 스크랩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경제 실력을 키워 나가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를 이끌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은 전수진 선생님이십니다.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희 경제동아리 부원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 학교에서 배부하는 생활생글 또는 기타 경제신문을 스크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민영화, 일본 제품 사용제한 등 사회이슈를 주제로 한 시사토론을 하였고, 독보도서관에 비치된 HWANIL ECONOMICS 전용서적들을 읽고 독서토론을 꾸준히 해왔으며, 한국경제 신문사, IBK기업은행 등에서 오신 외부 경제 전문가 분들의 강의를 듣고 경제지식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원들이 1년에 4회 열리는 경제, 경영 국가공인시험인 TESAT 과 1년에 1회 개최되는 KDI 경제한마당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시험에 대비한 많은 경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TESAT은 3급 이상을 획득 할 경우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어 관련학과 진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TESAT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통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KDI가 주최하는 경제한마당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아리 이름으로 KDI원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스크랩, 시사토론,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경제실력이 늘었고, 최신 시사이슈들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공부에서의 신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신문을 읽으면 논리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고 경제용어나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시사용어, 시사이슈를 알 수 있어서 경제공부에 있어 필수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TESAT 시험대비 방과후 학교 수업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경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대학교 입학사정관제를 준비 할 때, 특히 상경제열 진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년도에 서울대, 서강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대학교 상경제열에 합격하신 선배님들도 경제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고 상경제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경제동아리에 가입해서 다양한 활동과 기회를 접하는 것이 좋은 스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신문 이야기를 했는데, 상경제열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은 신문을 읽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부 HBS

2학년 지형근

안녕하세요, 저는 환일고등학교 방송부 HBS 16기 아나운서 지형근입니다. 저는 알찬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CA 시간을 만들기 보다는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해야 합니다. 방송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방송부에 꼭 지원해보길 바랍니다.



방송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부는 주된 학교행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방송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방송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기계 조작, 촬영, 영상편집 그리고 직접 화면에 나와 방송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PD 와 엔지니어 , 아나운서, 총 3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담당선생님은 김기욱 선생님과 명홍식 선생님이며, 3학년 10명 2학년 8명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부는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의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진회 부터 예배, 명사특강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입학식과 졸업식 등 모든 학교 행사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PD는 촬영과 스토리를, 엔지니어는 음향과 영상기술을, 아나운서는 직접 화면에 나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일 점심시간에 점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방송은 뉴스, 예능, 라디오, UCC 등 다양한 장르로 편성되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UOC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만족스러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무엇을 얻게 됐나요?

저는 막연하게 방송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아 진로를 정했었지만, 사실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방송부에 참여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보기밖에 할 수 없었던 기계를 다뤄 보고, 화면에도 직접 나와 방송도 해보았더니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고, 새로운 선배님들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방송부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덕분에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학교에 다니는 진정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진로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면 과감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열린 학교입니다. 방송부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동아리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결정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동아리에 들어갔든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KIMC

2학년 강희범

KIM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KIMC(한국모의국제회의, 'Korea International Model Congress')고교연합은 국제고, 외교, 사립 명문고 등을 포함한 약 40개의 학교들이 소속되어 학생들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비교과 활동입니다. 참가 회원들은 미국 의회와 UN국제기구(UNICEF, WHO, UNEP)의 회의방식으로 전 세계 이슈에 관해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과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환일고등학교에 있는 'KIMC 환일'은 여름과 겨울 매 해 두 번 고교연합에서 자치적으로 주최하는 한국모의국제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모의유엔대회(MUN)와 영어토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매주 모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KIMC는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일반계 사립고인 환일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활동들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KIMC동아리에 참가하면 다른 곳에서는 체험해볼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입학사정관이나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면 1~2년간 꾸준히 작성해 보는 회의기록과 자료들은 매우 좋은 스펙이 될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무엇을 얻게 됐나요?

또 KIMC 동아리에 가입하면 선후배간의 끈끈한 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선후배간에 연을 쌓는 것은 현재의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배들은 힘들고 낯선 학교생활에 대하여 선배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음으로써 알차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른 학교와 오프라인 회의를 하는데 이러한 회의를 통해 여러 학교의 훌륭한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영어실력에 자신이 없거나, 영어로 말하거나 쓰는 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러분들, 환일고등학교의 명문 동아리 KIMC에 가입해서 자신의 영어실력도 향상시키고,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즐거운 학창시절의 이정표로 만들어보세요



방과후 수업 및 특기적성 수업 소개

전학년이 단과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 2학년은 국영수 및 특기적성(원어민 영어회화, 일본어, 축구, 농구, 야구, 헬스, 미술,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학년은 국영수 및 탐구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영수 수업의 경우 교과 수준별로 기초, 보통, 심화의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이 평소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선별하여 자신

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맞춤 형태로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학과 공부 뿐 아니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축구, 헬스 등 운동 프로그램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제과제빵, 바리스타반도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축구반〉



〈야구반〉



〈바리스타반〉



〈요리반〉

학교 시설 소개



〈3학년 전용 자습실〉



〈영어 전용 교실〉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헬스장〉

2014학년도 신입생 명단

학급	담 임	고등학교 입학생 명단
1	김기현	강성훈,고영준,구동욱,구본준,권오영,김대우,김동호,김선재,김예준,김우진,김제민,김한진,나승주,류승원,박순성,박진홍,백종빈,서재현,오대환,유태영,윤유성,이대열,이종호,장효성,정새희,정성호,정원희,채성모,최성현,최재용,최현수,허태영,홍성재
2	최나미	고진우,김규환,김민석,김선재,김영준,김영진,김준형,김찬영,김호준,나기운,민경호,박정민,성주용,손지후,신동호,신명규,심세명,안형준,양준영,오윤환,유다혁,윤영현,이동준,이석주,임채현,정지원,정태영,정현우,진우빈,최승호,하승호,한규연,허지우,황의호,
3	박홍진	고은태,김동진,김민성,김민영,김민욱,김부식,김성재,김원민,김준석,김지현,민경빈,박성규,박우진,성민제,손상원,송주환,신경욱,안정현,유인호,유정엽,유진영,이민수,이병훈,이중혁,이진호,이현우,임성근,장원준,장주영,정재훈,주상현,최영동,한광희,한사무엘
4	김광은	강호준,김대길,김동현,김명진,김민기,김승진,김원정,김재우,김주영,문주형,박준호,박지홍,박 현,신지훈,안형주,양영준,엄진호,윤태환,이경환,이승안,이승현,이옥구,이우석,이원재,이재호,임채진,장승원,전지호,정재웅,정재훈,조한준,차정규,최재형,홍재민
5	양현준	강서진,권혁재,김경일,김성엽,김수형,김재형,문승근,박나현,박민규,박병민,백동우,송승환,송인준,심재원,양우성,우동기,유윤철,유재성,유현중,육현수,이종원,이중협,이 준,이준형,이호명,임영택,정우진,진태준,천준호,최봉환,최현준,허동민,홍경완,황재환
6	김효숙	김경민,김병찬,김세현,김시은,김용준,김지호,김진성,김태식,김형일,김형찬,문종완,박건후,박윤범,신동건,안평기,오부환,이동호,이일호,이제현,이종원,이주한,이준호,이형준,임태서,전주환,정상우,정철중,조동명,하승원,홍덕화,홍동욱,황민호,황정민
7	안효진	고영신,김규형,김도형,김동열,김민기,김선우,김영민,김준태,김지훈,김찬웅,나현석,남재현,명현식,문지환,박경태,박기현,박수완,송대재,이승철,이윤섭,이의연,이지우,이현민,이현식,장호재,조동신,조성관,조성찬,최규호,최 린,홍승환,홍준수,홍준화
8	김경신	강영준,공승환,곽진성,김명조,김민성,김병선,김상우,김연준,김정민,김지원,김철호,김태윤,김태훈,김형석,나재형,모승환,문준호,민병철,성원재,양예슬,양은혁,이유한,이태윤,이학빈,장우재,전병준,정의준,정재민,조한중,최원준,최유성,호명규,홍현민
9	윤종은	강찬구,고재형,김경빈,김동연,김병현,김정현,김준형,김준홍,김태원,김해찬,김희성,남동현,박상은,박선명,박수하,박창민,신우진,안석찬,안세환,양홍준,양재현,유선호,유철웅,유형준,윤준호,이승근,이진우,임태웅,장준원,정병윤,정창원,허 건,홍진욱,황지우
10	최윤경	강민규,고강호,권동현,김광현,김대원,김명우,김승진,김영진,김요셉,김인엽,김정환,김진연,김태형,노호준,류진석,박성우,박종수,박 준,백승훈,오인경,오재용,위민수,유병욱,이강현,이동기,이재윤,이정훈,이창현,정동환,정수현,정승훈,정준교,최민재
11	김기욱	김경훈,김명원,김민유,김민준,김민혁,김의찬,김재환,김정수,김창수,김호중,문영흠,박민석,방극현,서민기,신상근,안효준,엔크투브신투쿨들,이건호,이상민,이성혁,이용주,이태호,이현진,전성민,전진후,정누가,정유석,정찬진,조창민,채영학,최승현,최원철,최희국

2013 동계 간부 수련회 및 스키 캠프 실시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스키장에서 환일고등학교 동계 간부수련회 및 스키캠프가 110명의 학생이 참가 하에 진행되었다. 호연지기를 기르고 리더로서 갖춰야할 자질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동계 간부수련회 및 스키캠프에 는 본교 김은미 이사장님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학생들과 스키도 타고 식사도 함께하시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스키 캠프 소감문〉

상쾌한 슬로프의 추억

3학년 권지호

우리 학교 1·2학년 학생들 약 100명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로 스키캠프를 갔다. 참가 신청을 할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보드를 탈 생각에 들떠서 무슨 코스를 탈지, 밤에는 뭘 할지 신나게 이야기를 했다.

이미 학생들의 여론은 ‘고3 올라가기 전 마지막 방학인 만큼 한 번 놀아보자’ 라는 쪽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인지 주위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나는 비록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참가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프로그램이 매우 재미있었다는 주변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참가하게 되었다.

방학식을 마치고 드디어 하이원 리조트에 도착! 타이틀이 스키캠프인 만큼 오리엔테이션이나 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숙소로 올라가 짐을 풀고 밥 먹고 슬로프로 뛰쳐나갈 준비를 했다. 첫 날 저녁 스키는 정말 재미있었다. 오랜만에 탄다는 그 설레는 마음과 함께 보드에 발을 얹었다. 잘 타지는 못하지만, 강사 선생님과 잘 타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배워가며 즐겁게 탔다. 그날 밤, 숙소에서 간식을 기다리며, 작년에는 엄청난 과자 세례를 받았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은근히 피자나 치킨을 기대했지만, 꿀과 매점 빵을 보는 순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둘째 날 점심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식사 때 음료수를 나눠주셨다. 학생들을 위해 음료수를 준비해 주신 이사장님과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 덕분에 살얼음이 살살 녹는 음료수를 두 개 세 개씩 먹고 갈증을 해소했다. 밤에는 인근 치킨 집에서 닭을 시켜 먹었다. 아이들 모두 ‘1인 1닭’ 체제로 중무장을 하고 무서운 눈빛으로 닭을 와구와구 맛있게 먹었다. 역시 남고생들다운 식욕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날에 너무나도 열심히 보드를 타서 그런지 마지막 날에는 녹초가 되어서 타러

갈 수가 없었다. 대신에 슬로프에 나간 친구들을 대신해서 숙소 청소를 하였다. 양현이와 함께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하면서 집단생활에서의 자신의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한 명이라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스키캠프는 방학식을 맞이하여 고단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상쾌한 슬로프에서 질주를 펼치며 스트레스를 푸는 즐거운 단체 활동이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친구들과의 추억도 만들고 보드도 열심히 타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후배 분들에게도 학교 스키캠프를 적극 추천한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신나게 즐길 수 있어서 좋다. 또 무엇보다도 학교의 지원이 있어서 비용이 저렴했다.



영어 포트폴리오 대회 및 영어 독서왕 대회 실시

지난 1월 23일~24일에 걸쳐 영어 포트폴리오 대회와 영어 독서왕대회가 있었다. 영어 포트폴리오 대회의 경우 고2 학생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에 영어 수업 및 영어 관련 활동을 모아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심사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자는 으뜸상 2학년 남현욱 외 8명이 수상하였다.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의 경우 고2,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회로 2013학년도 영어 도서관에서 원서를 대출하여 읽고 쓴 Book Report 누계 및 성실성을 심사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자는 2학년 으뜸상 강희범 외 7명, 3학년 으뜸상 우중성 외 2명이다. 평소 성실하고 영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였다.

영어 포트폴리오 대회를 준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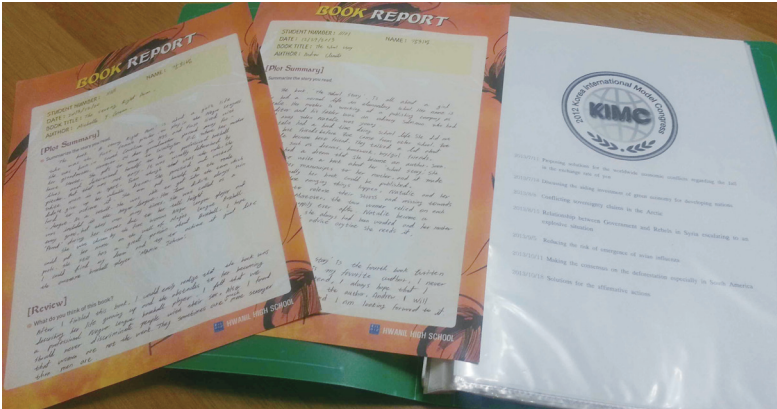
2학년 강희범

저는 평소 영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과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영어라는 과목을 깊고 심오하게 배울수록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쌓이고 쌓여 영어에 대한 흥미는 계속 높아져 갔고, 영어는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즉, 영어에 많은 흥미는 있지만 영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영어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영어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활동 중 하나가 바로 포트폴리오 작성입니다.

‘포트폴리오’란 자신이 한 활동을 작품집처럼 모아서 미래에 대학이나 회사 취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인 ‘KIMC(Korea International Model Congress)’에 가입하였는데, KIMC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 동아리 회원들이 각 나라의 역할을 맡고 배정받은 나라의 입장에 서서 주장을 펼치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동아리입니다. 토론을 모두 마친 뒤에는 동아리 학생들끼리 토론 때 나온 해결책들을 수렴하여 결의안을 작성하고, 이 결의안을 매 동아리 활동을 할 때마다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또한 저는 각종 교내/교외 영어대회에 참가했을 때 준비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즉, 대회 준비 중 작성한 리포트, 대회 후기 등을 정리하여 따로 모아두는데 예를 들면, 최근 학교에서 실시한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의 경우 저는 제가 쓴 독후감들을 파일에 모두 모아 정리해 포트폴리오에 사용하였습니다.

비록 제가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경험해봄으로써 분명히 많은 배움을 얻었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저의 작품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4학년도 주요행사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2월
3/3 입학식 4/21 부활절(춧불예배)	5/1~8 중간고사 5/15 스승의날 6/13 열린음악회 6/16~18 고1 수련활동	7/3~8 기말고사 7/15~16 심령부흥회 7/22 여름방학식 8/18 개학식	9/26 개교기념일 10/1~7 중간고사 10/15 봉학마루제 10/20~23 고2해외문화체험	11/13 대학수학능력시험 11/24 추수감사예배 11/30~12/3고3 졸업여행 12/29 겨울방학식	1/28 개학식 2/5 졸업식 2/6 종업식

제61회 졸업식 거행

2013학년도 환일고등학교 제61회 졸업식이 2014년 2월 7일(금) 오전 09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거행되었다. 졸업식에는 설립자 김예환 박사님, 이사장 김은미 박사님, 서울시 의원 최강선님, 서울시 의원 김창수님, 중구청 행정국장님, 육군 소장 서형석님(동문 24회 졸업), 해군 준장 정인양님(동문 27회 졸업), 학부모회장 김혜경님, 학교장 최상호님 등 내빈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된다. 식전 행사로 고등학교 입학 이후 졸업생과 관련된 각종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제작되어 방영되었고, 졸업장 수여식때는 모든 졸업생이 학사 가운과 학사모를 쓴 상태에서 담임교사가 강당에서 직접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5개 부문(교육, 종교, 과학, 사회, 문화 분야)에서 빼어난 업적을 남긴 동문들에게 '자랑스러운 환일인상'을 수여하였으며, 졸업장 수여식에서 졸업생의 개인별 사진과 입학 이후 주요 행사들이 슬라이드로 방영함으로써 '졸업생이 중심이 되는 졸업식'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로써 환일고등학교 졸업생은 총 50,198명이 되었으며,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세계를 품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청년 - 환일인에게



3-1 담임 연구부장 이정철

10여 년 전에 고3 담임을 처음 맡고 어떻게 진학지도를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 다. 학생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담임교사의 역할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대학의 입시전형을 통째로 다 암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시편8:1)' ,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편 139:9-10)' 이 말씀은 3학년 1반 교실 벽면에 오랫동안 부착되어 왔는데 제가 매일 아침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힘을 때나 기쁠 때 마주하며 학생들과 함께 암송도 하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손길을 내려 주십니다.

해마다 2월이면 졸업식으로 정든 고3 친구들을 떠나 보내는데 늘 아쉬웁만 남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의 졸업식은 참으로 뿌듯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졸업식 때문입니다. 2014년 2월 7일은 환일고등학교 제 61회 졸업식 날입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대표 수상자 중심의 지난날 졸업식은 무미진조하고 따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발상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자랑스러운 환일인상' 수상자로 저명한 대선배님들이 참석을 하시면서 졸업식의 분위기는 경건하면서도 졸업생들이 높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업증서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영문, 한글판으로 새롭게 제작을 했고, 학생들은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착용함으로 보다 경건하고 질서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졸업식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전 및 졸업장 수여 시 3년 동안의 활동 사진을 영상으로 송출을 했고 행사 말미에 학사모를 창공으로 던지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는데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가슴 뭉클한 아름다운 졸업식이었습니다.

금년에 고3 진학지도를 하면서 인상 깊은 것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박 모 학생은 고 1때 보통정도로 우수한 학생으로 2등급 6과목, 3등급 1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학년 12월에 세계 여러나라를 무대로 활동하는 외교관 삼촌을 만나서 오랜 동안 멘토링을 받은 다음 크고 소중한 그리고 간절한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롤 게임을 멀리하고 오로지 책과 씨름을 하면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전과목 1등급을 받았고 전교 1등을 유지하였습니다. 9월 초에 대입 수시전형에 6개 대학을 지원을 하였고 최소한 3-4개 대학은 합격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더욱이 수능고사 직전 10월 학력평가에서는 전영역 1등급으로 서울대 합격은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능고사에서 지나친 긴장으로 겨우 2과목 2등급을 받아서 많은 실망 가운데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후회없이 공부했고 논술, 면접도 잘 준비해 왔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5개대학은 낙방했지만 오로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만 합격하는 너무나도 기쁘고 기분좋은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온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구나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환일인 여러분! 당장은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 모 학생은 학과 성적은 별로 관심이 없는, 보컬로서 실용음악과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2학년 때 공부가 별로 적성이 안 맞아 보컬로 진로를 변경해서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히면서 감동을 많이 했고 그레도 고 3에 와서 본격적으로 실기 연습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9월 초에 수도권 대학 3곳과 지방대학 3곳에 원서를 접수를 하면서 적어도 수도권 대학 1곳은 합격을 장담하고 다녔습니다. 지방대학은 담임 추천으로 지원은 했지만 합격을 해도 등록 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음악과는 최근에 인기 최상위 학과로 경쟁률이 30 - 60 : 1을 기록할 정도로 진학의 문은 좁습니다. 수시 6곳 모두 불합격을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레도 이 친구가 바른 심성을 가졌고 담임인 저와는 소통이 되는 것이 장점으로 며칠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충격을 떨치고 정시전형 실기 때까지 두 달 간 혼신의 힘을 다해 실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겸손한 자세로 연습에 매진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정시전형에서 추계예술대학 실용음악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지방대학도 불합격한 그가 몇 달 만에 실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진정성 있게 연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면접관의 심사기준에 맞추어 준비한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환일인 여러분!! 항상 꿈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꿈은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動力)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교전선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지도자가 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남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며, 세계를 품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애들이!

이제 졸업했구나!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졸업 말이야.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단 한 번도 고등학교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단. 아마도 너희들은 지금은 부정을 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금의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믿음 · 소망 · 사랑이라는 급훈으로 늘 꿈과 희망과 사랑을 가꾸는 마음을 가지고 웅골찬 결심을 하며 시작한 것이 었고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감회가 새롭구나. 늘 조화 중에 시간에 강조했던 잔소리는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이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 낮아짐과 겸손, 배려하는 학급을 강조 했었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가질 수 없다면 잊어라!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또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 '스펙(SPEC)이 아니라 스토리(STORY)' , '안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등 긍정적인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시키고자 했던 담임의 잔소리를 듣고 잘 따라와 준 너희들이 고맙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지. 아마도 너희들이 무척이나 기다리던 것이겠지.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너희들을 따뜻하게만 맞이해주지는 않을 것이란다. 어쩌면 약육강식의 정글에 이제 막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야. 그곳에서는 약하다고, 처음이라고 봐주는 것은 없단다. 너희들 말대로 '한번만 봐 주세요' 란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들 중에는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진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졸업과 동시에 군입대를 할 친구들도 있을 것이야. 그 무엇이 되었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처지는 것 같아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단다. 인생이란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학교 다닐 때 잘 나가던 친구가 사회에서도 잘나간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20대 초반에 잘 나간다고 해서 인생 말년까지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선생님은 산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한 마디만 해야겠다. 산은 누구에게나 힘들단다. 내 비록 산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나 역시 산을 오를 때마다 험악하고 힘들어 한단다. 그래서 나는 산을 오를 때 거의 2~3m 앞에 있는 땅을 보면서 걷는다. 저 멀리 정상을 보면서 걸으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정상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산을 오르면 금방 지쳐버린단다. 또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항상 땅만 보고 걸을 수도 없단다. 땅만 보면서 걷다보면 내가 길을 잘못 들 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야. 정상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확인해야만 한단다. 그

러니까 내 목표를 확인하면서 가되 항상 현실에 충실해야만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된단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나도 빨리 가다보면 쉬 지쳐버릴 거야. 남들이 나를 앞서나가더라도 거기에 동요해서는 안 된단다. 마라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심은 마라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욱 중요하단다. 산행도 나 혼자만의 싸움이란다.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갈 때 정상에 다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장 빨리 산을 오르는 방법이란단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한단다. 주변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돼.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꿈을 향해서 달리다보면 어느덧 그 꿈을 실현시키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야. 물은 절대로 0℃에서 한 번에 100℃가 되어 끓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기를 바란다.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대, 50대 아저씨의 시간과는 차원이 다르단다. 지금의 1시간은 4,50대의 하루보다도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화학적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단다. 주어진 시간을 화학적으로 활용할 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예를 들어 학습에 몰입할 때의 학습 효과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리와 같은 거야. 시간은 고무줄의 성질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시간운용으로 꿈과 소망을 일구어 가길 바라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에게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닥칠거란다. 선생님 생각에 10대에는 10이런 만큼의 어려움이, 20대에는 20이런 만큼의 어려움이, 30대에는 30이런 만큼의 어려움이, 60대에는 60이런 만큼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구나. 그 동안 너희들은 어려움의 상당 부분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너희들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많아질거야. 고난이나 어려움은 절대 없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란다. 절대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마라.

너희들 덕분에 내 흰 머리가 조금 더 늘어났지만, 너희들 덕분에 즐거운 1년을 보냈구나. 너희들이 없었다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었겠니? 아무리 믿고, 화가 났어도 그레도 아마 너희들이 많이 생각날 거란다.

부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너희들이 인생이란 길에서 만날 온갖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인생의 안개 낀 밤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겸손히 뱃머리를 돌리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 할게요! 다시 한 번 졸업을 축하한다. 그리고 건강 하거라.